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광주서 유세전 '후끈'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은 줄었지만 동네 곳곳서 얼굴 알리기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 운동 첫 주말을 맞은 4일 광주에서 유세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각 당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취지에서 대면 접촉을 조심하면서도 선거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린 선거운동을 펼쳤다.

관록과 패기의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동남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근린공원 곳곳을 돌며 방역 봉사를 펼치며 유권자들에게 이들을 알렸다.

민생당 장병완 후보는 오전 8시부터 제2순환도로 용산 나들목 입구에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연설을 짧게 마친 뒤 90도 인사를 하거나 'OK' 모양 손 제스처를 하며 기호 3번에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한기선 후보와 기독교

자유총일당 이안숙 후보도 선거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알렸다.

동남을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가 유세 차량을 타고 주요 간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등지를 돌며 후보 약력과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현역인 민생당 박주선 후보는 무등산 국립공원·푸른길 공원에서 산책에 나선 유권자들을 만나 의정활동 성과 등을 설명하며 재신임을 구했다. 전직 동구청장인 무소속 김성한 후보는 홀로 유세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상가·주택가 등지를 오가며 '게릴라 유세'를 펼쳤다.

정의당 최만원 후보는 게릴라오거리와 학동 중심사 버스 종점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공약을 알렸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향숙 후보도 거리 유세에 나섰다.

서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방송사 초정 토론회를 녹화를 하면서도 틈틈이 시민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품양호수공원·운천저수지 등지에서 청소·방역 봉사를 하며 코로나19 맞춤형 유세를 했다. 현역인 민생당 전정배 후보는 오전 일정을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으며, 녹화 직후부터 운천저수지와 금호1·2동 주요 교차로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정의당 유종철 후보는 방송 토론회 전 후보 염주사거리에서 아침·저녁 2차례에 걸쳐 집중 유세를 펼친다. 북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형석 후보는 일곡생태공원·중외공원 등지에서 나들이객을 만나며 이름·공약을 알렸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최경환 후보는 운암·일곡·양산·북부경찰서 교차로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정의당 황순영 후보는 같은 당 다른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금호타이어광주공장을 찾아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다.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를 만난 뒤 2차선에 걸쳐 서광주 나들목 인근에서 유권자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재욱·기독자유총일당 강희중 후보와 무소속 노남수·김원갑 후보 등도 부지런히 발로 뛰며 유권자와 소통했다.

광산갑에서는 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하듯, 대대적인 선거 유세보다는 거리 방역 봉사활동을 벌이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민생당 김동철 후보는 유선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데 이어 선운지구 친수공원에서 야영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여등산 입구에서 주말 등산객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오후엔 자전거 유세를 이어갔다.

민중당 정희성 후보는 신흥동·도산동·선운동·월곡동 등지를 돌며 '지역경제세일꾼'을 뿌여달라고 호소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종민 후보도 유권자들에게 후보·정당을 널리 알리고자 분주했다.

/이광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찾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정의당 나경채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상인에게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코로나 위기에 뒷짐 1·2당 뺏아주면 대책 안 나와"

광주 찾아 송정5일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정의당 꼭 뺏아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4·15총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들 뺏아

주시면 대책이 안 나온다"며 원내 1·2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상인들과 연 간담회에서 정의당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번 총선은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IMF

위험하기 때 처럼 기업만 살고 서민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야 한다. 우리가 농사지을 때도 가뭄 나면 땅이 갈라지는데 다시 고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마중물을 풀어야 한다. 정의당은 서민 생존을 지키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에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 한 지방 세 가족(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게 민생 정책을 펼 수 있는 힘, 그게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정국에 반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 의석과 세금을 도둑질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대화·합의할 때 필요한 정당이 정의당이다. 과감한 개혁과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도 법 하나 못 고치게 돼 있다. 양당 체제가 강화되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이 뺏혀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연대할 수 있다.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민생도 지키고 개혁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기자

순천 갑, 여당 전략 공천 후보 vs 무소속

'소병철-김선동-노관규' 향한 순천 민심 예측 불허 민주당 전략공천-선거구 확정 반발 및 심판적 선거 소병철 "해룡면 되돌려오지 못하면 정치 생명 끝" 노관규 "오만한 세력과 싸워 순천 자존심 찾을 것"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형적 분구로 시민 분노가 들끓은 전남 순천의 선택은 누구로 향할까.

전남의 핵심 도시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투표를 81.8%로 전남 1위, 당선자 득표를 67.81%로 전국 최고의 선택을 했던 순천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항배를 가늠기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공천한 소병철 후보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노관규 후보의 '혈투'가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순천은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지난 10년간 민주노동당 김선동과 새누리당 이정현을 뽑았던 곳으로 '호남 하면 민주당'이라는 공식이 전혀 들어맞지 않은 곳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노관규, 서갑원, 장만채 예비후보가 경선전에 올랐으나, 제대로 된 경선을 치러보기도 전에 순천을 쪼개는 기형적 선거구 확정과 당 후보 전략 공천으로 선거판은 축제를 원했던 시민 기대와 달랐다.

순천은 예초에 인구 상향선에 따라 2명의 국회의원 선출이 기대됐다. 이 경우 꾸준히 선거판을 두드렸던 민주당 소속의 노관규, 서갑원, 장만채 예비후보와 순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는 민중당 김선동이 사이좋게 경합을 벌이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결과가 당연히 예측됐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인구 5만5000명의 순천 신대지가가 위치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로 편입시켜 '순천·광양·곡성·구례'로 분구하는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확정을 합의해 민심을 분노케 했다. 해룡면이 왜 기존 광양·곡성·구례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에 합당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해룡면을 뺀 순천 도심 대부분은 기존과 변함이 없음에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으로 이름만 바뀐 데다, 기껏 준비했던 예비후보 경선 잔치가 제가 강화되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이 뺏혀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연대할 수 있다.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민생도 지키고 개혁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역 출마를

포기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순천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으로 확정되면서 대구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소병철(62) 후보와 '최루탄'으로 대표되는 김선동(52) 민중당 후보, 노관규(59) 무소속 후보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해룡면이 고향인 소 후보는 민주당 인재영입 4호로 전략공천을 받았다.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무난한 선거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순천의 터줏대감인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노 후보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노동자들과 함께 달리는 추격전도 만만치 않다.

소 후보는 성동초, 순천중,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참정정부 시절 법무 정책기획단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전남 미래전략 자문기구인 신성장추진위원 등을 지냈으며 검찰 퇴직 후 변호사보다는 대학강단에 올라 순천대와 농협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소 후보와 접점을 벌이며 선거판의 폭풍으로 떠오른 주역은 단연 무소속 출마에 나선 같은 검사 출신이자 순천 시장을 지낸 노 후보다.

매상을 졸업한 뒤 구로공단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해 이뤘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기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국회 입성의 꿈을 꾀했으나 16대와 17대 연이어 낙선하고 민선 4기와 5기 순천시장으로 힘썼다.

19대와 20대 총선에도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번 21대 역시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꿈을 접을 뻔하다가 고심 끝에 무소속으로 나섰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유명한 민중당 김 후보는 18대와 19대 때 순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바 있으나 안타깝게 의원직을 잃었다. 전남 고흥 출신의 그는 고려대 물리학과를 중퇴하고 사회 및 노동운동에 전념했다.

제21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은 10년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민주당이 시민 정서와 무관하게 전략 공천을 감행한 것에 대한 심판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순천/김경의 기자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